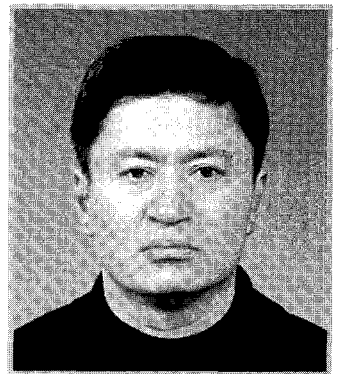


항생제 사용 제한, 실효성 있는 장기 대책 필요

- 양계장 여름철 파리 증가 당장 문제 된다 -



이 인 호 농수축산신문 동물약품전담 리포터

성장촉진제로 사용되고 있는 항균성물질에 대한 유해성 논란에 대해 EU와 미국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항생물질 혹은 성장촉진제로서의 항생물질 사용에 대한 EU의 입장은 그것이 100% 인체에 안전 하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사용을 해서는 안된 다는 “예방 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위해도 평가(Risk Assessants)를 비롯한 철저한 사전, 사후 검증을 통해 인체에 무해한 정도로 그 사용량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휴약 기간을 비롯한 규정을 엄수하여 가축과 인체에 유해한 특이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FDA CVM에서는 사용을 계속해서 허가한다는 것이며, 최근 들어서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항

균성물질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도 위해도 평가에 대한 연구가 내각부에 설치된 식품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미국 FDA CVM과 필부로와 엘랑코를 비롯한 다국적 동물약품의 주장은 성장촉진제로서 사용이 승인되어 매년 Miller Publishing Company에서 발간되는 Feed Additive Compendium(2004)에 수록되는 성분품목은 항균성물질의 각 제제마다 사용용량과 사용방법, 축체내 잔류기간과 이에 따른 휴약기간의 설정 등은 수많은 실험을 거쳐서 도출된 검증된 자료이기 때문에 미국 FDA CVM에서 사용을 승인한 성분품목의 사용을 원로수입국가에서



만 해외에서 인체의학에서의 항균성물질 내성에 대한 관심이 현재 개발된 항생물질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작용을 하는 반코마이신의 치료도 무용지물로 만드는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으로 일반 소비자들의

사용금지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과학적 증거를 분명히 제시하라는 것이며, 국내에서도 필부르와 엘랑코를 비롯한 다국적 동물약품에서 농림부 축산국을 방문하여 미국의 정서를 반영한 입장을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며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하고 있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기를 최우선 조건으로 꼽는 소비자들이 있어서 항균성물질의 오·남용은 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잃기에 충분한 조건이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약칭 소시모)을 비롯한 소비자단체들의 감시가 갈수록 예민해 지고 있다.

사료첨가용 항균성물질은 지난 50년 이상 낮은 수준의 사용으로 식용동물의 질병치료와 예방에 사용되어져 왔으며 다양한 축종의 생산성(증체, 산란율증가, 사료효율개선, 생존율증가, 육질개선, 번식률개선 등) 향상에 크게 기여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비록 국내에서는 공식적인 발생보고가 없지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인사들이 자신들의 90%에 해당하는 항균성물질에 대한 오·남용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인체 내성발생의 주요 위험인자로서 책임이 10%미만에 이르는 축산에서의 사료첨가용 항균성물질의 오·남용에 관심의 초점을 맞춰 C중앙일간지와 KBS 1TV공영방송(10월 6일 방영된 환경스페셜과 11월 7일 방영된 일요스페셜)과 MBC(심야스페셜, 10월 7일 방영)를 통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축산현장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을 주로 부각시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축산업계에 대한 항균성물질의 사용자제 압력을 노골적으로 가중시키고 있다.

인체의학의 예방적 차원에서 EU와 EU국가에 닭고기를 비롯한 축산물을 수출하는 브라질과 태국을 비롯한 나라에서는 성장촉진제로 주로 사용되던 여러 항균성물질의 사용을 EU국가와 같은 수준으로 중지시키거나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심을 두고 있

는 여러 국가의 관계당국이 축산물생산에서 사료첨가용 항균성물질의 사용허가, 규제방법, 인증 과정을 재검토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동향을 나타냄과 동시에 위해도 평가에 대한 검토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EU의 정서를 반영하려고 했던 일본의 경우는 사료용 항생물질 사용의 대폭감축이 가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득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에 자국의 동물용의약품협회와 과학사료협회를 비롯한 업계의 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각부에 설치된 식품안전위원회 내의 동물약품 전문가집단이 18차 이상에 걸친 회의를 하면서 2005년 3월경에야 결론도출을 하여 발표할 정도로 신중을 기하고 있고, 회의 내용도 인터넷으로 공개하여 국내에서도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투명행정을 함으로써, 일부 단체와 업계인사들 위주로 폐쇄적인 회의를 하거나, 명분축적을 위해 축산관련단체장들이 형식적으로 참석케 하는 확대회의를 한 뒤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우리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농림부 축산 국에 의해 결론이 이미 사전에 도출된 2~3차례의 회의만으로 53종의 사료첨가용 항균성물질을 25종으로 대폭 감축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국내 축산현장과 동물약품업계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질 현상과 부작용의 예상에 대해 선진 축산국가에서 보듯이 사전예측을 통한 실효성 있는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현실에 맞게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야 하나, 시행착오의 과정도 없이 항생물질 대체물질 개발과 뒤늦은 전문가집단구성이라는 판에 박은 행정용 방안제시 외에는 관련업계의 불안심리와 우려를 완충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공개적인 세미나를 비롯해서 업계와 학계 전체의 여론수렴 절차를 사전에 제대로 거치지도 않는 관행을 답습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장기적인 불황에 시달리며 돌파구모색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동물약품업계가 2005년 1월 1일 이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에 사료첨가용 항생물질의 대폭감축 시행이 본격화되면 양계농가들은 여름철부터 초가을까지 양계장의 골치 거리인 파리발생 억제에 크게 기여했던 싸이로마진 성분이 살충제라는 이유로 사료첨가가 금지되기 때문에 양계농가들은 지역의 판매점과 동물약품업체에서 직접 싸이로마진을 구매하여 무더운 날씨에 농장에서 직접 첨가를 해야 하는 불편과 파리발생의 증가를 감수해야 할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사료업계도 항균성물질의 대폭 감축에 따른 대응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사료용 항균성물질의 대폭감축이 국내 축산발전에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낼지 부정적인 변화를 나타낼 지에 대한 속단을 내리는 것은 무리이나, 이미 HACCP와 임상수의사의 처방제도 및 동물복지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EU국가의 예에서 보듯이 사료첨가용 항균성물질의 사용을 대폭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돼지의 회장염이나 육계의 괴사성 장염과 같은 소화기성 질병발생의 증가와 축산물의 생산성 저하와 생산비의 동반 증가가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러한 시행착오적인 현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사전에 면밀히 강구해야 한다.

성장촉진용 항균성물질의 인체건강의 대한 위

험도는 투명한 위해 평가방법에 의해서 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런 국제적으로 공인된 과학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결정 없이는 사료첨가용 항균성물질의 대폭사용의 억제가 인체의학에서 항균성물질 내성의 문제를 완화시킬 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축적된 과학적인 증거 제시 없이 사료용 항균성물질을 삭제하는 정책을 채택 시에는 미국 필부로서를 위시한 다국적 동물약품회사의 이익제기 및 항의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성장촉진용 항생물질의 감축 시에는 현장상황과 업계의 여론을 바르게 직시하여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국내 실정에서 E.U의 현실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가능성정도만을 가지고 조급하게도 일방적인 항균성물질의 대폭 감축을 확정할 것이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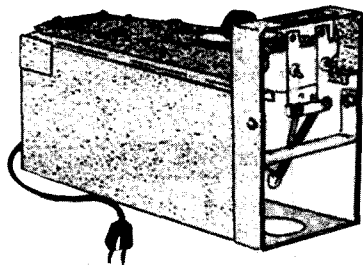
니라, 대폭 감축은 이미 관련업계도 수용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감축 시에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요소들을 전문가집단들이 연구검토를 거쳐 다각적으로 고려한 뒤에 신중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재 WHO를 비롯한 국제적인 기구들은 항균성물질의 신중사용의 원칙에 따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실히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성장촉진제로서의 항균성물질의 사용금지가 이미 스웨덴과 덴마크를 비롯한 EU 국가에서 보듯이 국가의 기대와는 달리 치료용 항생물질의 내성이 증가되고, 육계의 괴사성 장염과 같은 질병의 발생도 증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양계**

부리절단기 ♣ 님플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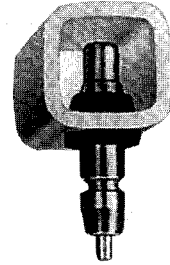
최고의 품질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리절단기(국산품)



※ 사용중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 드립니다.

님플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보령산업

전화 : (02)461-7887(주·야)
휴대폰 : 017 - 743 - 6887